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집만 주면 되나? 가족이 되어 줄게

2022. 10.

수원시

수원시 집만 주면 되니? 가족이 되어 줄게

□ 추진배경

- 별다른 준비나 도와줄 어른 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 자립준비청년 대상 중앙정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 추진내용

- 지역사회 역량 강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자립준비청년 거주지 주거환경과 생활실태 파악 심층인터뷰 및 현장조사
- 셰어하우스 예비 주택 현장방문 및 거주 불편사항 사전확인
- 셰어하우스 CON 주택 공급을 위한 LH 업무협약 체결
- 셰어하우스 CON 공고문안 자문을 위한 주거복지심의위원회 개최
- 가구 및 가전 후원을 위한 지역단체 및 기관의 사회공헌 등 기부
- 셰어하우스 CON 입주 자립준비청년 대상 O.T. 및 입주 환영
- 2023년 셰어하우스 CON 추진 사업비 본예산 상정(추진의지 반영)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정책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5년 이내 →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 LH 업무협약 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단체 및 기관의 기부 등 지역자원 발굴로 시민 공감대 형성
- 주거비 및 생활용품비 절감으로 주거안정, 자기개발과 자산축적 기회 제공
- 세상 속의 외톨이가 아닌 당당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제공, 사회적 관계(멘토) 및 지지체계 구축
 -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여 건강한 자립과 생애주기 원활하게 이행

<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전·후 비교 >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前(AS-IS)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後(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속의 외톨이(지지체계 미흡) • 퇴소 5년 경과 주택 지원 사각지대 • 실습 없는 이론교육 치중 자립역량 미흡 •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적·기관별 접근 • 자립정착금과 지원금을 주거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당한 홀로서기(튼튼한 사회적 관계) • 만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주거문제 해결 • 공동주거 통한 생활훈련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 • 당사사 맞춤형 One-Stop 청년주거모델 개발 • 자기역량개발 및 자산축적의 기회로 미래설계 용이

□ 향후계획

- 청년 대상 정부혁신과제 제안을 통한 전국 확산 시도
 - * 시범운영('22)→청년주거 표준 모형 개발('23)→전국 확산('24)
- 협업체계 구축 및 연차별 운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 매년 2호 이상 확대, 지역자원 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

1

집만 주면 되니? 가족이 되어 줄게. [수원시]

과제유형	기획-협업과제	정책분야	기타(주거복지)
주관기관 (협업기관)	수원시 도시재생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LH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신드롬협동조합	과제담당자	황산성 주무관 연락처 : 031-228-3028 이메일 : sansunge@korea.kr

1

과제 개요

◆ (사업목표)

- 행복한 독립공간, 관계형성, 경제지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비밀 언덕**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홀로서기 지원**

◆ (주요고객) 만기 및 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 기존 보호종료 주거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 포함

◆ (추진기간) '22. 4. ~ 11.

◆ (소요예산) ('22) 40백만원(시 10백, 건보 20백, LH 5백, 신드롬 5백) ('23) 81백만원(시 56백, 후원 25백)

◆ (추진내용)

- SNS를 활용한 국민정책디자인 내부 학습으로 자립준비청년 이해도 확대
-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현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 증진**
- 자립준비청년 거주지 방문 주거환경 및 생활실태 심층인터뷰 및 현장조사 실시
- 세어하우스 CON 운영 주택 현장방문 및 거주 시 불편사항 사전 확인
 -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적합도 판단 후 입주 대상 주택 변경**
- 세어하우스 CON 모집 공고문안 자문을 위한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어하우스 사용 **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수원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LH) 주택공급 및 시설관리
 - 청년 주택 공급체계 구축으로 **협업체계 구조화 모델 제시**
- 세어하우스 CON 가구 및 가전 설치를 위한 기부 등 **지역자원 발굴**
 - 기부 참여 기관·단체 대상 **자립준비청년 인식 제고**
- 2023년 세어하우스 CON 사업비 본예산 **상정(수원특례시 추진의지 반영)**

서비스디자인	토론회	CON 주택 사전방문	모집공고(QR코드)
			

2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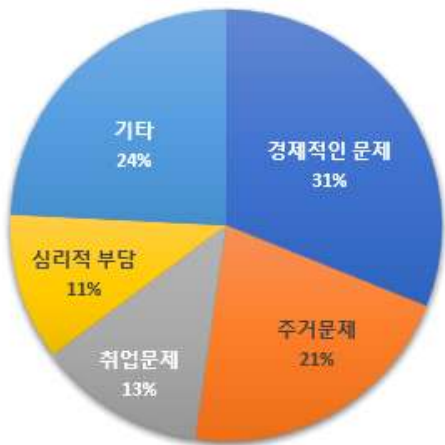
- 주거비 및 생활용품 마련 비용을 절감한 안정적인 주거공간 위에 커뮤니티 활동으로 심리적 안정, 당당하게 독립하기 위한 생활 및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사회정착 유도

□ 충분하지 않은 자립 현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연장시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퇴소 후 경제·주거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아동권리보장원)-



-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및 수당,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립현실은 충분하지 않음
- 고민을 상담하고 의논할 믿을만한 어른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

[그림 1]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운 점

<p>KBS NEWS(2022.9.20.)</p>	<p>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무엇이 문제인가</p> <p>입력 2022.08.29 04:52 수정 2022.08.28 15:04 황재영 기자 (chaureng@dailian.co.kr)</p> <p>주로 금전적 고민, 홀로 '살의 무게' 견디지 못해...제도적 안전장치 작동하는지 점검 목소리 정부, 보호 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6월부터 지원책 실행...월 30만원 자립수당 5년간 지급 각 지자체서도 금전적 지원 확대...전문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 자립 훈련 필요" "아이들마다 상황·사정 달라 일괄 지원 방안 충분치 않아...사례 관리 통해 보호·관심 필요"</p> <p>보육원출신 청소년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무엇이 문제인가</p> <p>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 비극이 잇달아 전해진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과 자립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데일리안(2022.8.29.)</p>
-----------------------------	--

“전문가들은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과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2022.08.29., 데일리안 기사 中】

⇒ 세상 속 외톨이가 아닌 **당당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적 안정을 강화해 건강한 자립과 생애주기 이행 유도를 도와줄 정책 필요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 만기 퇴소(예정)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주어지는 지원제도

“스무살 때는 퇴소하고 나오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 25살이 됐을 때 정신을 좀 차리면 그때 가서는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그래서 더 오히려 자립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사람이 먹고 자는 게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꿈이라는 걸 꿀 수 있거든요.

【전국자립준비청년 주우진 회장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인터뷰 中】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21.8월부터 3년 → 5년 연장)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자립준비청년 전세주택 등 주거지원

✓ 소년소녀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지원대상자)제1항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인(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보호종료아동(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3

추진내용

1 국민정책디자인단 이해하기

-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키워드로 나를 소개하며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
- 서비스디자인 기본교육
 - 국민정책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
 -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공유 및 조사 준비

□ 데스크 리서치

- 국민정책디자인 구성원 간 SNS 활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사례 학습
 - 언론보도, 연구 및 논문, 현 정부지원 및 선진사례 등 공유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 실시
 - 정책수요자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현상 및 문제, 배경 지식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지역 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확인

	일시	2022. 5. 27.(금) 15:00~17:00
	장소	수원시흥재복지타운 4층 교육장
	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복지분과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50여 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지역 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 보호종료 아동 지원 실태 및 문제와 개선방안 - 당사자 입장에서 본 지원정책의 필요 및 한계 - 청년사업단을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례 -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의 과제



○ 1차 서비스 사파리 및 정책수요자 인터뷰

- 자립준비청년 생활주택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실행 및 자립준비 청년의 애로사항 청취



당사자 심층인터뷰

- (문제1) LH전세임대를 통해 주택을 마련했으나, 집주인들의 낮은 선호도 및 자립준비청년 주택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생활 중임
- (문제2) 자립 초기 사기 피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크다 보니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정 어려움
- (문제3) 꿈을 갖고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취업이 어렵고 생활고로 인해 단기적인 일용직 또는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

○ 2차 서비스사파리 - 셰어하우스 CON 대상 주택 방문

- 자립준비청년들이 거주 시 어려움이 없는지 셰어하우스 CON 대상주택 방문



서비스사파리 및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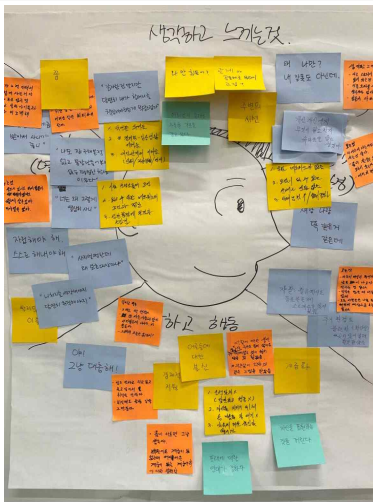
- (문제1) 다세대주택으로 안방의 크기가 크고 작은 방은 크기가 작아 청년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문제2) 작은 방 베란다에 세탁실이 있어 독립적 공간에 대한 문제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및 필요한 생활물품 논의

2 국민요구 발견하기

□ 공감지도로 정책수요자 공감하기

- 공감지도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보는 것(경험), 듣는 것(영향),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 공감

<공감지도로 정책수요자와 공감하기>



- 생각하고 느끼는 것 : 왜 나만 힘들지?. 주변의 시선. 여러 번의 실패로 우울함. 할머니를 책임져야하는 부담감, 꿈, 왜 나만? 내 잘못도 아닌데
- 보는 것(경험) : 재랑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 빈집은 많은데 내집은 없네. 주거환경의 청결이 문제(곰팡이, 개미 등)
- 듣는 것(영향) : 속한 네트워크가 없음,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배나 멘토 없음. 사지 멀쩡한데 왜 보호대상자냐, 자립 해야 해 스스로 해야 해,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시설 선생님들의 조언, 퇴소 후 속한 네트워크의 조언과 정보, 성장환경에 편견과 선입견
- 말하고 행동하는 것 :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난 다른 사람과 달라. 일도 안하고 쉬고 싶고 놀고 싶어서 취직을 안한다.

□ 친화도맵으로 문제 공감하기

- 데스크 리서치, 서비스 사파리, 심층인터뷰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구성원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친화도맵을 통해 문제를 시각화하여 공감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공간 마련 시 PAIN POINT

- ✓ (1순위) 독립된 공간 필요(개인공간이 침해받는다)
- ✓ (2순위) 청년 취향에 맞는 공간 구성이 필요(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 ✓ (3순위) 동거인과의 라이프스타일(수면시간 등)이 맞지 않으면 힘들다
- ✓ (기타의견) 지원정책 홍보,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교통 및 편의시설 고려, 퇴소 이후 거쳐 불분명, 혜택과 동시에 의무부여 부담, 주민 교류 프로그램 필요 등

공감을 통한 뜻밖의 발견

- ✓ 셰어하우스의 공동주거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보호종료아동으로 공동생활이 익숙할 것으로 예상하여 **한 방에서 둘이 사용할 것을 계획했으나, 독립된 공간이 필수라는 것을 발견**
- ✓ 청년들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학교 앞 **안전한 환경의 다세대 주택을 선호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반대로 어린아이 및 아기들이 있는 주택이 밀집되어 **젊은 감성을 느끼고 생활하는 데 제한**을 받으며, **주변에 청년들이 즐길 오락시설이 없어 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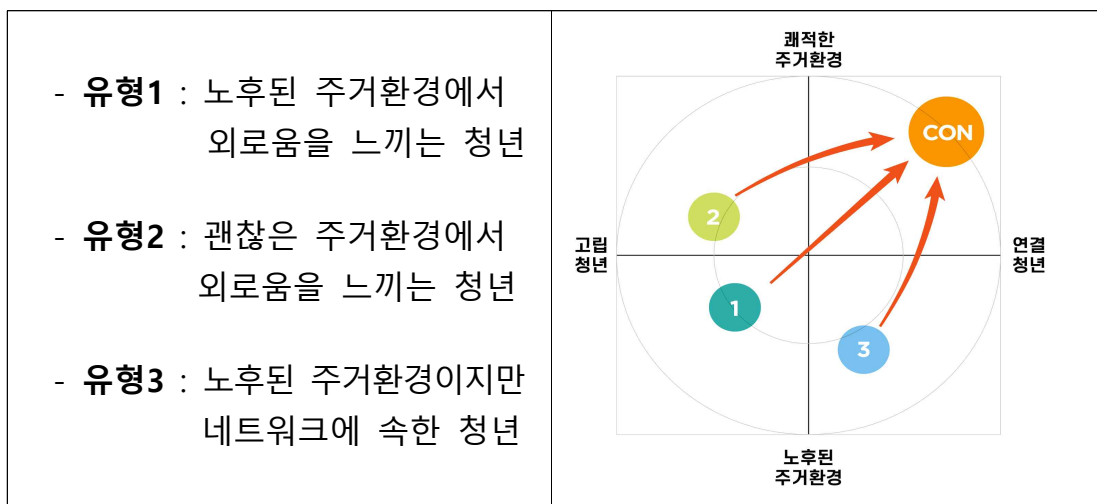
👉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키워드로 미션 정하기(키워드를 통한 추진방향 명확화)
- ⇒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독립공간, 셰어하우스 CON

3 문제 정의하기

□ 정책수요자 유형(Persona) 정의

- 정책수요자 유형(Persona) 정의 및 구체화
 - 관찰결과를 종합하여 주거환경과 사회관계망에서 고립된 정도에 따라 정책수요자 유형화



➡ (정책수요자 목표설정) 고립된 청년을 사회관계망으로 연결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청년 중심의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 각각의 정책수요자 유형을 구체화

성명	구분 및 성격	특징	PAIN POINT
장보고 23세(여)	유형1 내성적, 개인적 계획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기적이고 사람과 어울리는 게 부담 계산적이고 합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만 혼자 생활하면서 조금씩 나태 사회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있음
김춘수 25살(남)	유형2 내성적, 우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로움을 많이 탐 사람과 소통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관계망이 없어 정보부족 연락두절이 잦음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이 없음
왕훈 26살(남)	유형3 외향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5년 이후 진로가 불분명 구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점점 무리에서 이탈 진로와 취업에대한 실질적 멘토필요

□ 이해관계자 정의



- **핵심수요자:** 자립준비청년
- **직접관계자:**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특례시, 신드롬협동조합, 관리사무소
- **간접관계자:**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전국자립준비청년협회,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수원시자활센터(청년일자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NH(경기지역본부), 건강보험(인천경기지역본부), 그 외 후원기관 및 단체 등

□ 진짜문제 정의하기

○ 피소나 타입별로 겪는 시공간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수요자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보고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심도 있게 파악

- 입주 : 주택검색 및 상담 → 신청 → 면접 → OT
- 거주 : 의식주, 취업활동, 일, 여가생활 등
- 퇴거 : 이사계획, 주택검색 및 상담 → 이사

✓ 발견된 문제 1(입주 시): 신청자 미달에 대한 부담감

(공급자 입장)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홍보가 어려워요"

(수요자 입장) "퇴소 이후 독립할 날만 기다렸는데 다시 공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WHY ⇒ 이미 혼자살 수 있는 다른 주거지원정책이 많다.

퇴소 이후 5년까지는 시설에서 주거지원 관리를 한다.

- ✓ 발견된 문제 2(거주시): 공동주택의 경우 중도 퇴거자에 대한 부담감
 (공급자 입장) "2년 만기를 채워야 하는데 중간에 퇴거하면 어찌죠"
 (수요자 입장) "LH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WHY ⇒ 계속해서 공동생활을 이어갈 이유 및 동기가 없다.

진짜문제 1

- 지원정책이 불필요한 대상자 선정 및 차별화된 혜택이 없다.

- ✓ 발견된 문제 3: 생활비 및 관리비 납부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
 (공급자 입장) "기본생활비,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청년이 직접해야해요"
 (수요자 입장) "취업준비 중이에요 취업이 잘 안되고 꾸준히 오랫동안 일하기 힘들어요. 진로에 대한 생각은 못해요. 당장 생활비를 구하기 힘들어요"
WHY ⇒ 성취감이 낮고 동기부여가 없어 쉽게 포기

진짜문제 2

-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멘토, 진로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 ✓ 발견된 문제 4: 공동주거에서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보장이 어렵다.
 (공급자 입장) "오랫동안 양육시설에서 공동생활에 익숙해 있으니 셰어하우스에서 적응도 쉬울거예요."
 (수요자 입장) "처음 보는 룸메이트와 서먹하고 생활을 공유한다는게 부담스러워요. 수년동안 공동생활을 했는데 다시 공동생활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WHY ⇒ 일반 가정집 주택을 임대하여 제공. 방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고 크기도 작음.

진짜문제 3

- 청년들의 독립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 ✓ 발견된 문제 5: 공동생활 규칙이 내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싫다.
 (공급자 입장) "청년들이 셰어하우스에서 집처럼 따뜻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수요자 입장) "같이 사는 일은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투기 쉬어요. 설거지는 누가 할지 청소와 쓰레기 버리는 일, 관리비 분담과 인터넷 사용료는 누구 이름으로 할 지. 사생활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등등이요"

WHY ⇒ 기본생활에 대한 규율 및 규칙이 필요

(하지만 성인인 만큼 양육시설에서처럼 강제적이어서는 안된다)

진짜문제 4

-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이고 부드러운 규율이 필요하다.

✓ 발견된 문제 6: 세어하우스 퇴거 이후 거처가 불분명하다.

(공급자 입장) "세어하우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해요."

(수요자 입장) "다시 이사해야 하는데 퇴거 이후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WHY ⇒ 자산형성에 대한 교육과 자본이 부족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진짜문제 5

- 주거에 대한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질문

- 진짜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질문으로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

- ✓ 어떻게 하면 경제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 ✓ 어떻게 하면 심리적·정서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까?
- ✓ 어떻게 하면 복지정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4 전달하기

□ 전략수립을 위한 롤플레이를 통한 시나리오 설계

- 스토리보드를 통해 국민들과 서비스 시나리오 이해

- 아이디어 워크숍 아이디어들을 서비스 고객여정과 정책대상자에 따라 터치포인트를 정하여 가상의 시나리오 작성 및 스토리보드 제작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공유

스토리보드로 서비스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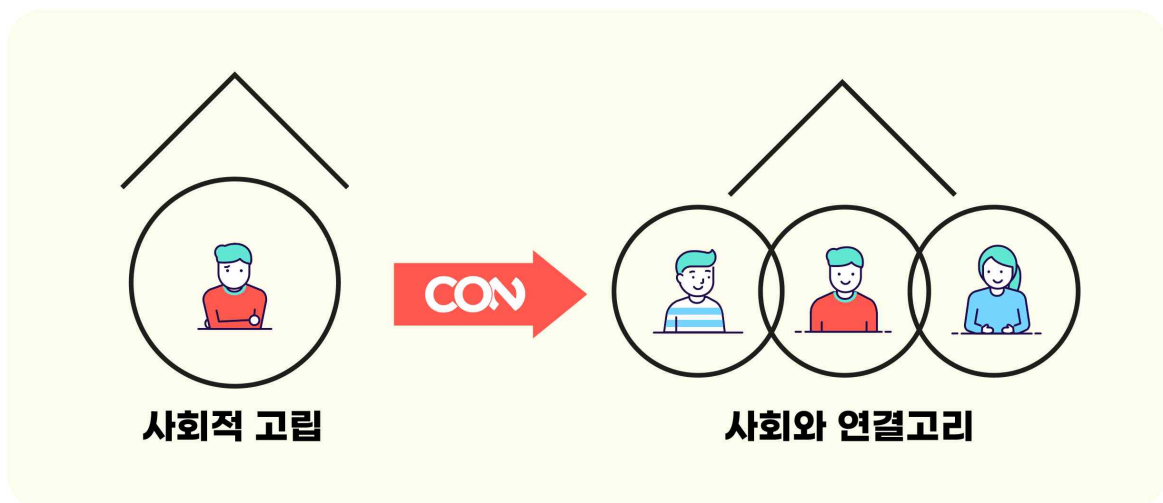
- 정책수요자 가상입주 롤플레이팅 및 관찰입주자 인터뷰를 통한 지원대책 마련
 - 경제적 문제 : 보증금 및 임대료, 가구·가전 및 생활용품 지원, 자산 형성 금융프로그램 지원
 - 심리적·정서적 관계 형성 : 입주자 오리엔테이션 및 '동네형' 프로그램 제공
 - * '친해지길 바래' 관계형성 프로그램, 같이사진 및 같이여행 프로그램, 입주 전 공동생활에 대한 본인 습관 공유
 - 복지정책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전달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정보 전달 및 지원
 - * 주거지원 멘토링 및 정보지원, 부동산 및 자산 기본교육, 취·창업 및 진로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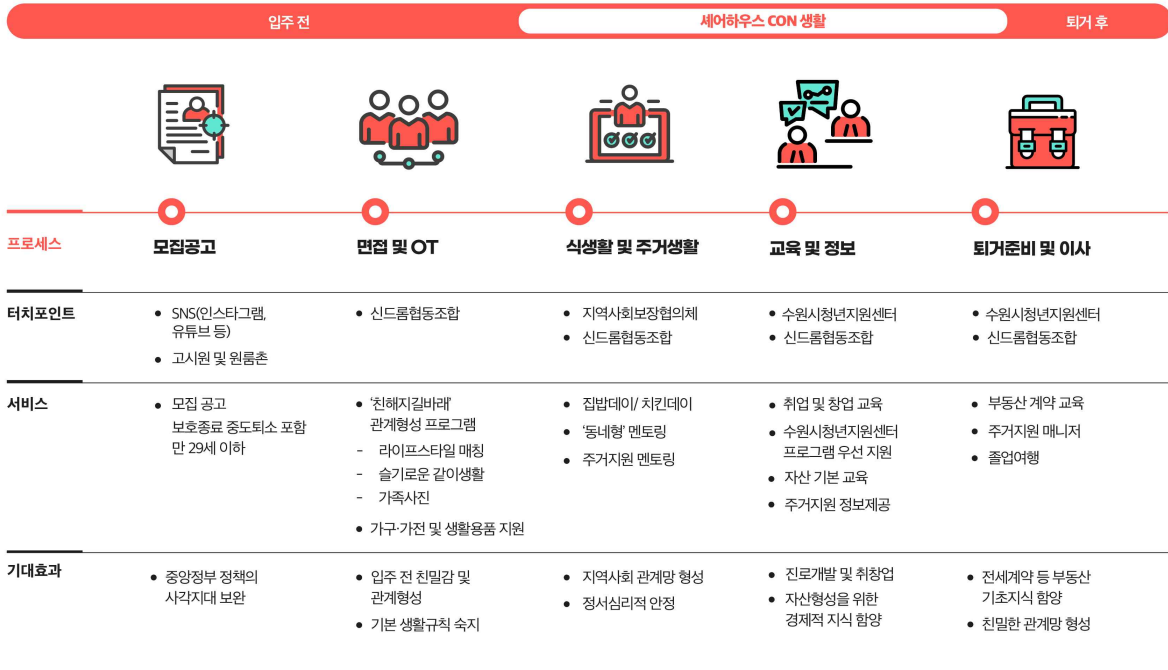
5 제안하기

·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짜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 도출

□ 서비스 컨셉 : **고립된 자립준비청년과 세상의 연결고리 CON**



□ 서비스 청사진



□ 서비스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지대 보안을 위한 지원대상자 기준 선정
 - 중앙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나 퇴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은 제외되는 현실 보완
- ⇒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 세어하우스 지원**



□ 중점 지원 서비스

1. 사회적 관계망 형성



김준수 (25.남)
그룹홈 출신
수급비와 자립수당이 끝나가는 시점 홍보문자를 받았다. 이전 공동생활에 대한 기억으로 기대반 걱정반으로 신청을 했다



친해지길 바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해지길 바래' 프로그램이 어려웠다. 하지만 3번 정도의 만남을 가지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치킨데이 & 집밥데이
입주 전 OT에서 함께 살게될 친구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년 후

주거 교육 및 정보
퇴거를 앞두고 청년지원센터 주거지원 매니저님이 부동산 정보와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 계약도 했다

○ ‘친해지길 바래’OT 관계형성 프로그램

- 입주 전 라이프 스타일 매칭: 내 습관 공유, 나의 분노버튼 확인하기 등을 통한 공동거주 자립준비청년 이해
- 슬기로운 가치생활로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생활 지침 제작 : 공동생활규칙을 최소한 정해서 거주시 불편함 해소
- 같이사진 및 같이여행 프로그램 :공동거주 자립준비청년과의 유대감 형성

○ 집밥데이, 치킨데이로 관계망 형성 지원 : 지역사회의 멘토와 관계형성

2. 경제적 지원



장부고 (23.04)
보호종료 2년차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는 세어하우스 CON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내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지만 경제적편이 어려워 신청해보았다.



친해지길 바래 OT

친해지길 바래 OT에서 각자 생활공간에 대한 규칙과 공과금 납부 등을 정했다. 적당한 선과 거리를 지켜주는 분위기라 곧 적용할 수 있었다



복지 지원사업 정보

신드림협동조합에서 경기노동자청년통장에 대해 알려주어 신청하였다. 매달 10만원씩 넣으면 2년 후에 580만원이 모인다고한다.

2년 후



가족사진 및 여행

곧 이 집을 떠난다. 처음 서약했던 친구들은 이제 둘도없는 친구가 되었다. 아니 가족이 생긴것 같다. 처음 OT때 찍은 사진의 서약한 모습이 재있다. 친구들과 여행도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니 기대된다.

-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 무료 거주로 자립 위한 투자 비용 지원
- 가구·가전 및 생활용품 지원 : 이사로 인한 비용 발생 최소화
- 자산형성 금융프로그램 정보지원 : 청약저축, 보험 가입 등 정보 제공

3. 진로교육 및 복지정보



왕훈 (26년)

보호종료 5년차

보호종료 5년차라 주거지연도 끝나고 모이둔 자급도라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자산형성 금융지원 멘토링 지원 등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세어하우스CON'을 알게되었다. 보호종료 5년이 지난지만 신청 가능한 주거지원사업이었다



친해지길 바래 OT

입주 전 OT에서 함께 살게될 친구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년 후



진로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2년 동안 진로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었다. 그동안 자산도 형성되었고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직업도 갖게되었다

-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우선 지원 : 취업면접 정장 대여 지원, 스터디 및 회의 공간 대관, 빔프로젝터, 요가매트 등 물품 대여
- ‘동네형’멘토링 : 지역 내 취·창업 및 지역 정보 소개와 어울림활동

- 취업 및 창업 교육 멘토링
- 주거생활 지원 멘토링 및 복지 정보
- 부동산 및 자산 기본 교육 : 생활비 사용과 월급 관리하기 등 교육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 >

연도	주요 추진사항	소요 예산(백만원)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정책디자인 사업 응모 및 선정 ○ 정책아젠더 구체화 및 과제 추진 ○ 셰어하우스 2개소(6명 모집) 운영 ○ 입주자 멘토링 및 사업운영 평가 ○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특별교부세 지원) ○ 2023년 사업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건보 20백만원, 신드롬 5백만원)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정부혁신과제 제안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수원시 주거복지조례 개정 ○ 셰어하우스 2개소 추가 운영(6명 모집) ○ 입주자 대상 운영 평가 및 워크숍 ○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평가 ○ 2024 사업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백만원 (시비 56백만원, 후원 25백만원)
'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혁신과제로 전국 추진 ○ 셰어하우스 매년 2개소 추가 운영(6명 모집) ○ 입주자 대상 운영 평가 및 워크숍 ○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평가 ○ 2025년 사업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백만원/년 (국도시비 56백만원, 후원 25백만원)

4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성과

가.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현황

구분		성명/소속/직위	역할	
국 민	분야 전문가	이주미 간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자문 ○ "세어하우스 CON" 세부적인 운영 방안과 지원체계 논의 	
		서경아 차장 (LH 경기지역본부)		
		김기강 이사 (신드롬협동조합)		
		왕건 센터장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정책수요자	주우진 대표 (전국자립준비청년협회)	○ 수요자 관점에서 아이디어 제안	
		박명훈 자립준비청년		
		강우혁 자립준비청년		
	정책공급자	이종철 위원장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공급자 관점에서 구체적 지원방안 발굴	
		권숙희 총무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디자이너		정영국 대표(디머스)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 수행을 총괄 기획·운영
	공 무 원	국민정책 디자인단 담당	조윤주 주무관 (정책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총괄 ○ 서비스디자이너 섭외 및 배치
		사업담당	김매옥 팀장, 황산성 주무관 (도시재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명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이행 및 성과결과 도출

나. 국민정책디자인 추진 성과

<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전·후 비교 >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前(AS-IS)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後(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속의 외톨이(지지체계 미흡) • 퇴소 5년 경과 주택 지원 사각지대 • 실습 없는 이론교육 치중 자립역량 미흡 •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적·기관별 접근 • 자립정착금과 지원금을 주거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당한 홀로서기(튼튼한 사회적 관계) • 만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주거문제 해결 • 공동주거 통한 생활훈련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 • 당사자 맞춤형 One-Stop 청년주거모델 개발 • 자기역량개발 및 자산축적의 기회로 미래설계 용이

□ 자립준비청년 대상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 셰어하우스 CON 운영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지대 보완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비교 >

중앙정부	수원특례시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 퇴소(예정)한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지원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지원

-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나 퇴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은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서 제외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가정위탁)

□ 협업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셰어하우스 CON’ 주택공급을 위한 LH 업무협약 체결(‘22.7.29.)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입주대상자 선정,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
 (LH)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공급 및 시설물 운영·관리, 기본가전제품 빌트인

- 2020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LH 매입임대주택 2호' 공급
- 셰어하우스 CON 수요 증가에 따라 최소 연 2호씩 주택 물량 확대
- '셰어하우스 CON' 추진 사업비 2023년 본예산 상정
- 임대보증금(20,000천원), 임대료(26,400천원), 프로그램 운영(10,000천원)

□ 당사자 욕구와 썬문제 발견으로 수요 맞춤 서비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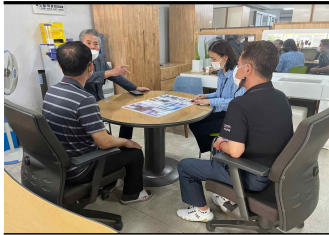
당사자 욕구와 썬문제 발견	맞춤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정책 불필요자 선별 및 차별화된 혜택 부재 ▶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멘토, 진로에 대한 비전 부족 ▶ 방 크기 다르고 일부공간 공동사용 등 독립적인 공간 부족 ▶ 기본생활 규칙은 필요하지만 유연한 자율적인 규율 필요 ▶ 퇴소 이후 지속적인 주거 독립을 위한 대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에게 선호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자산형성) 논의 ▶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단체와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개인공간 내 사생활 보장 위한 개별공간 맞춤가구 설치 ▶ 입주 청년 O.T. 프로그램 진행 시 자율적으로 결정 ▶ 셰어하우스 CON 퇴소자에 청년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시민 공감대(공동체의식) 확산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시설물 운영·관리
-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지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청년과 주택 입주 후 생활에 대한 이해는 부족, 향후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에 동의

<p>수원시, LH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실시</p> <p>취준생 등 원동형 주택 중 032세대 지원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도 협력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30% 우선 공급</p> <p>수원시가 LH와 협력해 역세권 임대주택으로 된 청년주택의 30%를 주거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주택 공급도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p> <p>협약에 따라 LH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 호수의 30% 범위에서 수원시에 우선 공급하고, 수원시는 입주할 주거형의 질을 선별한다.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개발 후 임대할 경우, 수원시에서 주민 6개 주주이다. 수원시청9에 시 도로로 6~10부 가에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차례 순차로 제공할 예정이다. 원동형 주택으로 총 032세대인데, 2024년까지 27호를 제1호 대학생-기초준비생-청년인 등 수월사가 신청한 주거형에 우선 입주한다. 협약을 통해 역세권 임대주택과 청년인도 건물도 지원한다. LH가 매입임대주택과 케어나눔 건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시설 운영관</p> <p>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 CON' 공급도 협력한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CON으로 공급하고, 기본가전제품을 설치해준다. 수원시는 입주자를 선별하고, 임대보증금-상환금을 지원한다.</p> <p>지원받은 청년 지원정책인 '셰어하우스 CON'은 청년 생활비 지원금 및 보호아동 중 보호가 종료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공동 주거 공간과 생활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CON은 Community(공동체)와 ON(예)을 합쳐 만든 용어다. 수원시는 8~9월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자, 셰어하우스 입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례한 시정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 청년들에게 청년 맞춤형 주택과 활동 공간 지원을 약속한 LH에 감사한다"며 "LH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 모두가 누리고, 무엇보다도 확대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8월 17일 기자</p>	 <p>건보 인천경기본부,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준비 돕는다</p> <p>수원시·LH 협업 통해 셰어하우스 제공 생활필수품 등 구매비 2200만원 기탁</p> <p>국인간접보육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환)는 1일 수원시청에서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 준비를 위한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 구매비 2200만 원을 기탁하는 기증식을 가졌다.</p> <p>매년 약 2500여 명의 보호종료 청년들이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살기를 시작하고 있으나, 커 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립을 위한 첫 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이런 사회공헌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이 인건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LH가 협업해 기탁했으며, LH에서는 셰어하우스 2가구를 지원했다.</p> <p>공단은 청년들의 셰어하우스 거주에 필요한 2200만 원 상당의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 구매비를 지원했다.</p> <p>특히, 기탁받은 공단 임직원들이 보유한 사 회간접보육으로 마련한 그 의미를 담았다.</p> <p>이제는 수원특례시정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해주시는 공간에 감사드립니다"며 "장모도도 공 단에 건립하게 됐다며 보직사상과대에 있는 서 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번 기자</p>
<p>셰어하우스 공급 관련 LH 업무협약</p>	<p>건보, 자립준비청년 후원(2022.9.1)</p>

- 건강보험공단 :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구입비용 지원(2천만원 기부)
 - 전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강보험의 가치에 맞게 입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더욱 관심을 갖고 동행할 것임
- 수원시가구연합회 : 2회 미팅 후 CON 추진 사업비 후원(1백만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고 향후 기회가 되는대로 후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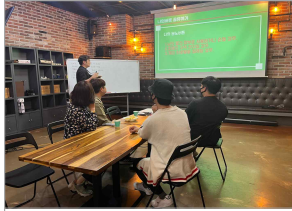
【수원시가구연합회장 김종묵】

□ 지역사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회적 자본(관계) 축적

“최근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된다”며 “혼자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외로웠던 게 제일 힘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자립을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어하우스 CON 1호 입주자 인터뷰 中】

-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지체계 구축 및 심리적 안정
 - 자립준비청년과 관계된 직접이해관계자와 간접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탄한 홀로서기와 원활한 생애주기 이행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자립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통해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지원
 - 지역사회 내 기관·단체별 커뮤니티 활동 계획
 - ✓ 신드롬사회적협동조합 : 입주자 오리엔테이션 및 ‘동네형’ 프로그램 제공
 - * ‘친해지길 바래’ 관계형성 프로그램, 같이사진 및 같이여행 프로그램
 - ✓ 희망등지사회적협동조합 : 세어하우스 공간 내 맞춤가구 기획 및 설치 지원



O.T. 진행 (신드롬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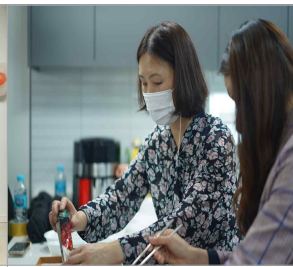


맞춤가구 설치 (희망동지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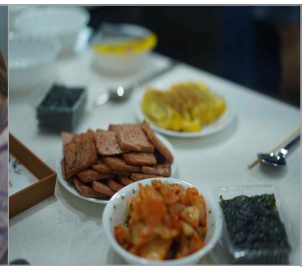
- ✓ 수원시청년지원센터 : 부동산 교육, 취·창업 교육 및 진로 멘토링 등
- ✓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입주 환영, 집밥데이, 치킨데이



입주 환영



집밥데이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미래 설계

- 보증금 및 임대료 전액 지원 및 생활용품 설치 비용 절감

- 개인 비용 감소로 자기역량개발 및 자산축적 등 자립을 위한 투자

*자기역량개발 과제 운전면허 취득 등, 자산축적 위해 청약저축 및 실비보험 가입 소개

“지금까지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했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빚은 지 지않았지만 저축은 못했다. 그런데 세어하우스에서 임대료를 안내도 되니 지금까지 지출했던 월세만큼 적금을 들 수 있을 거 같다”고 하면서 “수원시 덕분에 집이 해결됐으니까 모든 일도 차근차근 풀리겠죠”라며 기뻐했다.

【세어하우스 CON 1호 입주자 인터뷰 中】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전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

- 세어하우스 CON 영상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어 전국행

- 명실상부 수원특례시 청년주거정책을 넘어 전국에서 추진될 수 있는 표준모델로서의 위상을 갖춘 사업으로 급부상

*2022.10.5.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세어하우스 편’ 시청률 2.3%

- 사업추진의 모든 과정을 방송·기사로 송출하여 지자체 문의 촉발

*정책디자인단 구성부터 10회차 세어하우스 입주까지 언론 노출

다. 국민정책디자인 운영시 미흡한 점 및 향후 개선방안

□ 홍보 및 준비 기간 부족으로 모집인원 미달

- 미달 인원 추가모집 일정 및 추가 지원혜택 논의
 - 세어하우스 1호 입주에 따른 언론매체 홍보 등 홍보 강화
 - 자립준비청년이 선호 및 필요로하는 자산형성지원 발굴 연계
 - * MBC '생방송 오늘 저녁'(2022.10.5.) 방영
- ⇒ 모집에 앞서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은닉한 자립준비청년까지 사업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철저
- ⇒ '22년 시범운영과는 달리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시기 등 감안하여 '23년 추진 시 모집 및 입주시기(2월경)를 조정하여 시행

□ 과제수행 사업비 “0원”

- 신규 추진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추경 포함) 없이 사업 진행
 - 국민정책디자인단 회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 정책기획과 협조 집행
 - 가구·가전 등 물품 설치 사업비는 지역사회 후원 발굴 연계
 - * 건강보험 인천경기본부, 수원시가구연합회 등 후원 연계
- ⇒ 2023년 추진사업비 본예산 상정하였고 일부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지역자원 발굴하여 민관 거버넌스 행정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

5 향후 추진계획

□ 청년대상 정부혁신과제 제안을 통한 전국 확산

· 본 정책은 전국에 거주하는 자립지원청년 대상의 주거 및 홀로서기 지원 정책으로 우리시 **사업성과 전파 시 전국 확대 추진 가능성 매우 높음**

- 1단계 :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선정 후
 - 지원과제 선정 후 추진단계별 언론 홍보로 사업성과 공유
- 2단계 :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선정 후
 - 자립준비청년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의 표준모형 개발

- 사업추진 성과와 국민정책디자인 운영에 대한 **촉촉한 언론홍보**로 정책의 실효성을 전파하여 전국적인 수요를 발굴
- 3단계 :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정부혁신과제 제안
 - 자립준비청년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의 표준모형 전국 전파
 -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되어 전국 확산

□ **자립준비청년 수요 저격 자산형성 프로그램 개발**

- 청년들이 선호하고 그들에게 절실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논의
 - 셰어하우스 사업 소개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활동 전개



셰어하우스 CON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후원 소개 ‘입주한 자립준비청년 1인당 거주기간 2년간 월 10만원씩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 지원 약속’ 지원 발굴

【3개 사업장, 월 60만원 후원, 6명 지원】

□ **셰어하우스 CON 연차별 확대 운영 (매년 2호)**

- 셰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마련 완료
 - '23년 본예산 상정(보증금·임대료 등 56,400천원)
- 지역사회 후원기관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후원 체계 마련
 - LH 업무협약('22.7.29.), 건보 후원금 전달식('22.9.1.) 및 셰어하우스 입주 환영식에 3개 기관 공동 참여('22.10.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진행**

- 시범운영에 따른 내용을 기초로 미흡한 점 보완 개선 반영하여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 '23년 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추진

□ **벤치마킹 대비 자료 제작 및 친절한 사업 소개**

- 타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의 방문 및 전화 문의 시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 성과보고서 및 언론홍보 자료 공유로 타지자체 사업추진 멘토링

□ [실적] 과제 추진과정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경인일보 2022년 4월 20일 (수)

행정안전부 'PICK' 받은 수원시의 '자립준비 청년 세어하우스 CON'

김준석·손성배 기자
joonsk@kyeongin.com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 사업 진행절차 / 수원시 제공

행정안전부가 올해 서비스디자인 등 국민 참여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도록 지원할 사업으로 수원시의 '자립준비 청년의 세어하우스 CON(콘)'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시의 예산 지원이 행정안전부의 이번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 공직자, 서비스디자인 등이 관련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선정

국민일보 NEWSIS 2022년 5월 16일 (월)

수원시, 자립준비 청년 '세어하우스 CON 운영 첫발'

기사내용 요약
행정안전부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선정,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하고 첫 회의

[수원=뉴스1] 16일 경기 수원시홍재복지타운에서 시 국민정책디자인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수정식 제공)

[수원=뉴스1] 수원시 16일 청년 주거복지정책인 '세어하우스 CON(콘)'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인 '세어하우스 CON'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세어하우스 CON" 추진 첫회의

인천일보 2022년 5월 30일 (월)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최적 방법 찾기에 머리 모아

홍재복지타운시 '정책 포럼'이 정부 각 부처·기관·지역사회 관련 인력들이 머리를 모아 최적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수원시가 정부의 정책 포럼 '자립준비청년 지원 최적 방안 찾기'를 주제로 지난 27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 최적 방안 찾기'를 주제로 열린 '자립준비청년 지원 최적 방안 찾기'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수원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지원과제에 선정된 '세어하우스 CON(콘)'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최적 방안 찾기'를 주제로 열린 '자립준비청년 지원 최적 방안 찾기'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수원시,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토론회' 실시

YTN 2022년 7월 29일 (금)

[경기] 수원시, 주거 취약 청년에 역세권 주택 우선 임대

경기도 수원시가 LH와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역세권 비주택 리모델링 청년주택'의 30%를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세어하우스 공급도 추진하게 됩니다.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수원시청역 주변의 원동형 277가구로 2024년까지 저소득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창업인 등 시가 선정한 주거취약 청년에게 우선 임대합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수원시-LH 주택공급 협약 체결

연합뉴스 2022년 9월 1일 (목)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공동주거공간 마련... 2년간 무료

이동희·서지은 기자
이동희@ynews.com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세어하우스 CON'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어하우스 CON'을 2년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세어하우스 CON'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어하우스 CON'을 2년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어하우스 CON" 입주자 모집 공고

경기신문 2022년 9월 1일 (목)

건보 인천경기본부,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준비 돕는다

수원시-LH 협업 통해 세어하우스 제공 생활필수품 등 구매비 2200만원 기탁

국립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1일 수원시청에서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 준비를 위한 기탁금 등 생활필수품 구매비 2200만 원을 기탁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기탁금 약 2500여 명의 보호종료 청년들이 보육 시설을 떠나 홀로살기를 시작하고 있으나, 거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립을 위한 첫 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다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원소년들이 안정

국립건강보험공단, 자립준비청년 위한 기부

단순 주거공간 넘어 홀로서기 도와주는 "나만의 든든한 지원군"

내 조부모는 제는 만 20대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어머니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않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어머니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않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세어하우스 CON 기획보도

"자립준비청년들, CON 입주를 축하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장이 세어하우스 CON에 입주한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자립준비청년들, CON 입주를 축하합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4일 '세어하우스 CON'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입주를 축하했다. '세어하우스 CON'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가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

세어하우스 CON 입주 축하

수원시, 보호 종료 청년에 주거 지원... '홀로서기' 돕는다

한주현 기자 | 작성 2022.08.02 17:36 | 조회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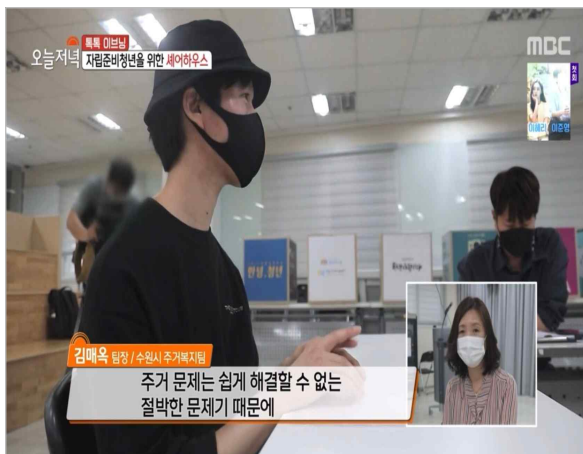
보호 종료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세어하우스 CON"사업 방송 보도

수원시, 주거 취약 청년에 '맞춤형 주택 공급'



- 세어하우스 CON**
- Community(공동체) + ON(계속)
 - 양육시설 보호 끝난 29세 이하 청년
 - 공동주거공간, 생활용품 제공



김매옥 팀장 / 수원시 주거복지팀
주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기 때문에

월세 0원? 세어하우스 입주하는 날

'돌아갈 보호시설도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수원특례시에서 준비한 복지가 있었으니, 바로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

【생방송 오늘 저녁 中】

MBC "세어하우스 CON"입주 보도

□ **[계획] 지속적인 홍보로 예비 입주 청년 발굴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청년에게 친근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예비 입주 청년을 발굴하여 셰어하우스 입주 혜택 공유
- 수원iTV나 출입기자 사업 관련 문의 시 사업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가치 전파 및 확산
 - ▶ 언론사 응대 사업추진 성과와 가치 제공 및 인터뷰 등 협조

첨부1**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실적 및 단계별 산출물**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실적

구분	일 시	장 소	참석자
1차	2022년 5월 16일 14:00~16:00	수원 흥재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8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2차	2022년 6월 3일 14:00~16:00	자립준비청년 공동생활주택	국민정책디자인단 6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2명
3차	2022년 6월 10일 14:00~16:00	신드롬협동조합 워크숍룸	국민정책디자인단 9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4차	2022년 6월 17일 14:00~16:00	수원 흥재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6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5차	2022년 6월 24일 14:00~16:00	수원 흥재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3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6차	2022년 7월 8일 13:00~15:00	수원 흥재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5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7차	2022년 7월 8일 15:00~17:00	수원 흥재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5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8차	2022년 7월 21일 14:00~16:00	수원 흥재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2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2명
9차	2022년 7월 29일 15:30~17:30	신드롬협동조합 워크숍룸	국민정책디자인단 3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10차	2022년 9월 30일 15:00~19:30	세어하우스 CON 1호 주택	국민정책디자인단 5명,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 3명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단계별 산출물

구분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산출물
1차	1단계 (이해하기)	- 국민정책디자인단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공감대 형성을 위해 3가지 키워드로 나를 소개하기 - 정책목표 이해 및 조사 준비	국민정책디자인단 이해
2차	1단계 (이해하기)	- 서비스사파리(현장조사) : 수요자의 관점으로 문제 발견하기 ⇒ 자립준비청년 공동생활주택에 방문하여 서비스사파리 및 심층인터뷰 실행, 자립 준비청년의 애로사항 청취	수요자 인터뷰를 통해 잠재된 욕구파악
3차	2단계 (발견하기)	- 공감지도로 정책수요자 공감하기 - 친화도맵으로 문제 공감하기	수요자의 심리적·정서적 상태 및 문제 공감
4차	3단계 (정의하기)	- 정책수요자 유형화 및 목표설정(2x2메트릭스) ⇒ 고립된 청년을 청년중심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세상과 연결하는 셰어하우스 CON	정책수요자 유형화
5차	3단계 (정의하기)	- 키워드로 미션정하기 - 이해관계자 지도 그리기 - 고객여정맵 그리기	입주대상자 설정
6차	3단계 (정의하기)	- 정책수요자 유형 정의 ⇒ 셰어하우스 가상의 사용자 및 모집대상자 선정을 위한 핵심고객 설정	정책수요자 목표 설정
7차	3단계 (정의하기)	- 정책수요자 유형 구체화 ⇒ 사용자 유형과 주요 정책대상자를 조합 하여 가상의 사용자를 구체화하여 정의	페르소나 설정
8차	3단계 (정의하기)	- 진짜문제 정의하기 - 아이디어 발전하기	아이디어 확산·공유
9차	4단계 (발전하기)	- 고객여정맵을 통한 니즈와 해결책 마련 - HMW 질문, 아이디어 워크숍	HMW 도출
10차	5단계 (전달하기)	- 정책수요자 가상입주 롤플레이팅 및 관찰 입주자 인터뷰 - 국민정책디자인단 추진 내용, 운영 성과 정리 및 개선방안 논의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총정리 및 향후계획 수립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총평

○ 분야 전문가

- 이주미 간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번 만큼 그 말이 와닿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한 곳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대단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빠르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이기에 멀리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났던 과정만큼이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앞날이 빛나길 기대합니다.

- 서경아 차장(LH 경기지역본부)

첫 모임에서는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할 정도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LH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청년과 또 주택에 입주하였어도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우연히 수원시청의 사업 제안 전화가 제게 왔고, 또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대해 듣게 되면서 그들이 꿈을 접지 않고 훨훨 날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공공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CON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게 아닐까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특정 나이가 되면 준비없이 홀로 사회에 진출해서 모든 풍파를 홀로 맞서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세어하우스 CON은 따뜻한 집에서 함께할 동료들 만들어주고 또 삶의 자혜를 전수할 멘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세어하우스 CON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가 자립준비청년들이

2년 후 CON 밖으로 진출했을 때 굳건하고 단단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LH도 국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CON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LH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수 원시청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공공의 지지 아래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 김기강 이사(신드롬협동조합)

국민정책디자인단은 민·관이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간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공공이 생각하고 주도했다면,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시민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민간을 토대로 서비스 잘 조율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민·관의 생각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제 해결중심이 아닌 미래중심적으로 ‘미래를 향한 정책’**을 함께 많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 왕건 센터장(수원시청년지원센터)

짧지 않은 국민정책디자인단의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은 주체분들을 만나게 되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디자인단 같은 집단지성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정책수요자

- 주우진 대표(전국자립준비청년협회)

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면접심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시설 간의 교육이나 정보의 격차의 심함을 다시 알 수 있었고, 면접대상자 후배가 말한 “**보호종료 5년 동안 주거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보호종도아동’과 ‘보**

호종료 5년 이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과 지지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수원시에서 세어하우스 CON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해 잘 정착한다면, 타 지자체에도 시행할 수 있는 성공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의미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29세라는 점과 초기 지원대상자 설계 및 지원항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당사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책공급자

- 이종철 위원장(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만든 것 같아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주거문제가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세어하우스 CON이 도움이 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주거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른들을 가족들처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 권숙희 총무(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대부분 독거노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삶을 잘 몰랐습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손주 같은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아팠던 적도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 생활했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고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어하우스 CON에 거주하는 동안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족이 되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멋진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 서비스디자인

- 정영국 대표(디머스)

얼마 전 제가 교육 중인 자립준비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그림자도 없었고 우울증 증상도 안보였고 정서적으로 건강해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을지 혼자서 짊어져야 할 많은 짐들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소식이 끊겼을 때 걱정은 되었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면서 일반청년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반청년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립청년에게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일반 청년도 품어줘야 하겠지만 정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비빌 언덕조차 없이 사회와 고립되어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단절 속에 갇힌 부모없는 청년들이 먼저가 되어야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관심속에 복지정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청년들은 지금도 어느 골방에서 끙끙 앓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번 디자인단 활동으로 중앙기관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육원 중도퇴소자와 보호종료 5년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수원시가 지자체의 첫 사례로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원시가 많은 지자체의 선진사례가 되고 사각지대 놓인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희망이되는 지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주신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자립청년협회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등 참여해주신 국민정책디자인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공무원

- 김매옥 팀장(사업 담당)

처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던 순간, 단지 주거문제 해결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함께 살면서 자립해 나갈 미래를 생각할 때 고민해야 할 많은 일들 때

문에 쉽게 추진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의 입장과 사고의 범주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이 국민정책과제로 선정되고 함께 논의할 시민과 전문가, 당사자가 생겼으니 한시름 놓았지만 그도 잠시 처음 접해본 국민정책디자인 과정은 공무원인 저에게 처음 접하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은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이기에 국민정책디자인 추진과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수원특례시에서 하려는 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기존 운영 사례와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이나’는 당사자의 뼈를 찌르는 말에 그야말로 ‘내가 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고 했는지’ 순간 속상함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은 보편적으로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 모범 답안 이상의 의견을 말하고 재촉한다면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심경은 정말 곤혹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 의견을 모른척 외면하고 회피하는 동안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고 마무리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어하우스 CON에 입주할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가 나가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결과는 정말 냉철했습니다. 외면했던 지점(중도 퇴소와 퇴소 5년 이후)이 현실이 되어 발목을 잡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문제의 지점으로 돌아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중도 퇴소와 퇴소 5년 이후 청년에 문구를 수정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국민정책디자인 방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시민과 당사자의 의견이 녹아지고 무르익어 알찬 결과를 거두게 하였다는 깨우침의 과정이었습니다.

9월 30일 입주라는 결과를 얻은 것도 당연히 큰 보람이지만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살아갈 수원특례시가 다양한 지역 자원의 보고라는 사실,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자립준비청년의 가족이 되어 줄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야말로 매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세어하우스 CON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정책디자인 과정은 우리 지역사회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다시 결집시켰고 공동체라는 가치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얻은 값진 결과이고 보람입니다.

- 조윤주 주무관(국민정책디자인단 담당)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처음에는 생소하기만 했는데 여러 참여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황산성 주무관(사업 담당)

국민정책디자인 과제에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세어하우스 CON을 구상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세어하우스 CON에서 생활했을 때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해요!” 하고 답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성과(추가)

○ (사회가치 실현 성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동체 의식 확산

- 자립준비청년의 가족이 되어 줄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발굴과 결집
 - * LH, 건강보험공단(경기인천본부), 수원시가구연합회,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국민)의 참여로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공감대 확산
- MBC 등 방송·기사 송출로 자립준비청년 전국민 인식 개선
 - * 국민정책디자인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방송 3회·기사 9회 432건 송출

○ (코로나19 대응 성과) SNS와 Zoom을 통한 비대면 소통 활용

- 정기회의 외 소통 채널 비대면 Zoom 회의 및 SNS 활용
 - * 주거지원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선진사례 공유, 입주 청년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 온라인을 통해 수시 소통
- 세어하우스 CON 입주환영식 간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 * 입주환영식에 최소인원 참여, 세어하우스 CON 추진과정을 영상 제작하여 관계자들에 성과 공유

○ (국민참여 성과)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발견 및 보완

- 중앙정부 주거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자립준비청년 문제인식
 - * 집단지서의 힘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자립준비청년에 지원정책 마련
- 자립준비청년 욕구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설계
 - *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One-Stop 청년주거모델 개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과 다양한 관점으로 시너지 효과 UP
 -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완성한 “세어하우스 CON”